

교회의 재발견: 부흥운동을 넘어 대안적 윤리공동체로*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 /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장)

I. 들어가는 말

II.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윤리

1. 안티시대의 교회와 윤리
2. 대안적 윤리공동체로서 교회

III. 부흥운동을 넘어 윤리목회로

IV. 나오는 말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글은 2006년 10월 개최된 <NICE: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논평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ABSTRACT •

Studies on the essence and mission of church is main subject of theology. Specially, study on mission and vision of Korean Church is very important for tomorrow of chu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thical task for desirable image of the future of Korean church. Many Christians in Korea eager to revive the glorious honor and joyfulness of Pyeong-yang Great Revival in 1907. Christians in Korea think that the method of revival is to gather so many people through a mammoth events.

But the reality is not so good. Nowadays, church of Korea stopped to growing and faced at social criticism.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would be various. This paper empathize the factor of morality of Christian in Korea. Church and Christians are situated at anti-Christian tendency. Many people blame Christians and church because of some moral problems of church leaders. There would be meaningful criticism for reflection and be one-sided blame to Christianity also.

Now, this paper focused on two points; (1) the main factor of crisis is ethical problems of Christian and Church in Korea. (2) the genuine method of overcoming of crisis is to 'let church be church'. As S. Hauerwas says, church is social ethics itself. And church must recover its moral uniqueness in this libertarian society. Also Church must be an alternative in morally confused age and recover the tradition of Gospel-narrative for peace-making in the age of war and violence.

And the practical task of revival is to make church and Christian to be an ethically mature Christian.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actice is to do morally in many areas of Christian life. Especially ministerial ethics and ethical ministry must be realized by moral ministers. Through various moral practices church of Korea could be revived. In this meaning, the most urgent task is not gathering mammoth events but reviving the ethical authority of church.

Keywords: moral crisis, ethical revival, ministerial ethics, ethical maturity, ethical ministry

I. 들어가는 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관한 성찰은 신학의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현재와 미래의 교회를 위해 반드시 살펴야 할 주제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질문해야 한다. 구원의 방주를 자부하면서 민족사의 중요한 대목마다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온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의 걸출한 기록들을 남겼으나, 지금 대내외적으로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여 있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야 하건만,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정도이다. 이러한 때에 신앙인을 격려하고 우리사회에 희망적 비전을 심어주는 일은 교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재발견하고 교회의 영향력을 갱신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사회를 향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려는 작은 몸짓의 하나이다. 특히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교회를 재발견하고 우리시대의 교회를 위한 윤리적 비전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을 통해 교회의 윤리적 영향력을 갱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윤리

1. 안티시대의 교회와 윤리

한국교회는 최근 두 개의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 하나는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는 연도수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청이 발표한 개신교 인구수이다. 각각 별개인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일맥상통하는 것일지 모른다. 한국교회의 위기인식과 부흥의 모색이 그것이다. 100년 전 영광을 재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부흥운동'이 교계의 대형집회들로 표출되고 있으며, 개신교 인구의 감소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은 기독교의 자기성찰 내지는 내부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라기는 두 가지 모두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숫자놀음이 아닌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에서 전체 종교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개신교 인구는 감소하고 천주교 인구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소식은 기독교 신앙인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¹⁾ 공신력을 앞세우는 국가기관의 통계자료를 둘러싸고 개신교 안에서 관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무시해도 좋을만한 숫자라는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도 개신교 인구에 포함되는 조사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 타종교 인구에 허수가 많다는 사람들, 그리고 개신교의 심각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개신교 인구가 감소추세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특히 한국의 교회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기독교윤리는 교회성장을 말할 때 걸도는 이야기에 불과했다. 최근에 등장한 복지목회라는 용어를 비롯한 사회적 참여나 봉사를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윤리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목회자의 책임에 관해 말하는 '목회윤리'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신앙에 관한 윤리적 성찰의

1) 동아일보(2006.5.26) 기사 참조.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둔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영적 리더십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또한 어느 시민단체의 대표 격에 해당하는 인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성장둔화에는 교회의 도덕성 약화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³⁾ 그런가하면 목회자의 윤리의식을 교회성장과 연관짓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목회자의 윤리의식이 둔화되면 교회성장도 둔화된다는 의견도 있었다.⁴⁾

모처럼 교회가 윤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위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면피를 위한 도구로 윤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부도덕한 일은 없을 것이다. 교회의 윤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겠다는 책임의식에서 비롯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윤리적인 관심을 말할 때, 교회의 미래에 관한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교회윤리의 모색에 걸림돌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 하나는 외적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요인이다. 첫째, 외적요인으로서 한국사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싸늘하다 못해 안티적이다. 기독교신앙인과 교회를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향한 도덕지수를 높게 주지 않는

2) 국민일보(2006.7.21) 기사 참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결과를 참조하였음.

3) 손봉호, “도덕성 결여가 교회성장을 막는다”, <http://cafe.naver.com/maral/1>에서 인용

4) “목회자의 윤리와 교회성장”. 『교회성장 가이드』(교회성장연구소, 1993.10)를 참고하였음.

형편이다. 대형교회들이 더 이상 사고나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냉소적이다.

심지어 이제까지 교회가 수행해온 아름다운 일들까지 매도되기 쉽다. 돌이켜 보면, 한국교회는 사회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해 왔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이웃이 되는 일에서 있어서, 그리고 사회 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교회만큼 앞장서 헌신해온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을 듯싶다. 그러나 사회는 교회가 수행해온 영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일들은 외면한 채 기복신앙, 광신집단, 이기주의 등 명분으로 따가운 눈총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찌 보면 억울하기도 하다. 하기가 예수 당시에도 오해와 박해에 익숙했던 터에 굳이 억울할 것까지는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사회를 허탈하게 했던 배아줄기세포실험에 관한 기독교의 반대입장에 대해 ‘수구꼴통’이요 ‘애국심 없는 매국노’라는 딱지를 붙였을 때, 우리사회가 뭔가 크게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한국교회가 환영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깊은 자괴감이 들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사회봉사와 사회참여를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야 하는 이유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독한 댓글로 집요하게 기독교 혈통기에 집착하는 일부 네티즌을 비롯한 안티세력의 비판이 교회혐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들의 비판은 교회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난 것이라기보다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무차별적인 기독교혐오에 이르고 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가 나올 때, 거기에 붙는 댓글들은 보는 것 자체가 싫어질 정도로 지독한 안티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일부 안티세력 및 네티즌의 정신건강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도 있지

만, 기독교가 집중포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주어야 할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차원을 달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교회가 이제까지 헌신해온 보이지 않는 봉사는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사명이지만, 그것은 정책당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여 거들어 주는 보조적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오히려 교회만의 독특한 공동체적 돌봄을 구현해야 한다. 사회의 사각지대를 찾아 봉사하는 일은 건전한 시민윤리의 연장선상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독특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로, 내적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한 윤리적 활동을 비판과 비난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앞질러 말하자면, 비난과 폭로와 비판이 능사는 아니다. 교회를 위한 쓴소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쓴소리에 그치거나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옳지 않다. 대안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윤리가 세워져야 한다. 기독교윤리가 해야 할 임무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토론에 가담하여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윤리적 실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사회가 줄 수 없는 희망적 대안을 주고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윤리적으로 자기성찰을 통해 갱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막연한 방향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는 교회의 갱신을 위해 도덕적 성숙이 필요하다

는 식의 원론적 수준에 머물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 접근은 문제의 인식은 될 수 있으나 해법은 되지 못한다. 교회가 윤리를 말할 때, 그것은 일시적 관심이나 방향제시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교회에 중요한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윤리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현세적 지평을 넘어서는 독특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사회가 흉내 낼 수 없는 탁월성을 교회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은혜중심성을 바탕으로 하는 은혜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비판일변도의 접근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고 희망을 심어주며 영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의 가능성을 교회 안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안티를 불식시키는 것은 예술수준의 절묘한 홍보동영상이나 언론플레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지도력과 영적 영향력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룩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대안적 윤리공동체로서 교회

교회가 사회에 독특하고 탁월한 윤리적 대안을 제안하고 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교회되게 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재발견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회의 교회됨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 수없이 다루어 온 과제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현대 신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빠짐없이 교회의 모습을 말해 왔다. 아쉬운 것은 교회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개인으로서 신앙인이 어떤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기독교윤리학을 통해 수없이 다루어져 왔으나 정작 교회를 위한 윤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규범을 가져야 하는지, 교회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자료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공동체를 위한 윤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몇 안 되는 단초들을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게서 하나의 중요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의 교회론에 담긴 여러 논제들을 섭렵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관심사와 연관지을 수 있는 몇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을 향한 순례의 공동체이며 예배와 덕성함양의 공동체이다. 특히 『신의 도성』(De civitate Dei)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교회는 로마의 시민적 덕성을 넘어서는 탁월하고 진정한 덕의 훈련장이며 실천현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 또는 안식은 유한한 가변성의 영역인 현세에서 이룰 수 없다. 시간과 영원의 구도에서 볼 때,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실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까지 안식이 없다.⁵⁾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참된 행복 또는 영원한 삶의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실존적 결핍의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누릴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추구하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이며 은혜가 소통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초에서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교회의 윤리학적 의의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순례자들의 덕성을 함양하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또는 훈련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란 일시적이

5) Conf. I.1

고 가시적인 이 땅에서 영원한 불가시적 하나님 나라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하는 곳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⁶⁾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순례자들은 교회 안에서 지혜의 정신을 밝혀주고 경건의 마음을 강화시켜주는 은혜를 힘입어 평화라는 궁극적 선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⁷⁾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적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덕성을 함양하고 구현하는 교회라 할 수 있다.⁸⁾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그가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신의 도성』에 착수했던 저술동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마의 위선적 덕성과 기독교의 진정한 덕성을 대비하는 부분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로마인들의 덕성은 진정한 미덕이라 할 수 없으며, 유사미덕(a quasi-virtue)일 뿐이다.⁹⁾ 어떻게 보면 화려한 악덕(splendid vices)에 지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그들이 도덕적인 체 하지만, 로마는 형제의 피 위에 건설된 도시로서,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오히려 평화는 로마적 의미의 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 특별히 죄의 용서에서 찾아야 한다.¹⁰⁾ 진정한 평화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을 포기할 때 이루어진다.¹¹⁾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의 덕목은 로마가 말하는 위선과 다르다. 겸손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최고의 찬사를

6) De civ. Dei X. 14

7) De civ. Dei XIV.28

8) 이 부분에 유용한 참고도서로, 유지황,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사상 이해』(땅에 쓰신 글씨, 2005)를 추천한다.

9) De civ. Dei V.12

10) De civ. XIX. 27

11) Hauerwas, 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1983) p.89

받는 덕목이요, 순례자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¹²⁾

이처럼 덕의 진정한 완성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언급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순례자 공동체로서의 교회인식에 기초한다. 더욱이 덕의 원천에 관한 개념도 로마인들의 그것과 다르다. 로마인들이 그토록 앞세우는 덕스러움이란 인간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¹³⁾ 말하자면, 덕의 함양은 은혜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교회의 도덕은 은혜중심성에 있으며, 교회는 은혜에 의한 덕성함양의 공동체라 할 수 있겠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안한 덕성함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현대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을 통해 재현된다. 특히 덕과 인격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리차드 니버(H. R. Niebuhr)가 교회공동체와 내러티브의 상관성을 제안했던 것이나 거스타프슨(J. M. Gustafson)이 비록 소극적인 관점이지만 내러티브와 교회공동체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것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¹⁴⁾ 그리고 하우어와스(S. Hauerwas)는 거스타프슨이 교회공동체의 이야기 이외에 사회적 배경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교회를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스타프슨이나 하우어와스 중 누가 옳은가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던 그들 각자가

12) De civ. Dei XIV. 13

13) De civ. Dei XXII. 30

14) 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 내러티브에 관한 논의는 임성빈, 『21세기 책임윤리의 모색』(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58-111면에 수록된 두 편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거스타프슨의 윤리사상에 관한 소개로 노영상, 'J. D. Gustafson의 기독교윤리사상에 있어서 도덕적 판별의 문제' 임성빈 외, 『현대기독교윤리학의 동향』 I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57-100면)을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이미 설전을 벌인 바 있을 뿐 아니라 현대기독교윤리학에서 여전히 유효한 논쟁이라는 점에서 선불리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는 다만 창의적으로 응용할 따름이다. 특히 교회를 도덕공동체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하우어와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 가지 더 있다면, 교회를 대안적 윤리공동체로 본다는 의미에서 하우어와스의 관점이 우리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우어와스가 표방하는 공동체주의 윤리라는 것 자체가 현대윤리학에서 하나의 대안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 응용의 필요성은 더 분명해진다.

하우어와스가 속하는 공동체주의란 현대윤리학의 주요한 논제의 하나로써, 자유주의를 그 카운터 파트너로 삼는다.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덕의 윤리가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 또는 현대시민사회를 포기하고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이 과연 의미있는 것인지 묻기도 한다. 맥킨타이어(A. MacIntyre)를 위시한 공동체주의자들 자체도 다양한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자유주의자들의 관점과 대비되는 사고방식임을 알 수 있다.¹⁵⁾ 특히

15)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박정순의 서평(『철학과 현실』 1991. 가을호. 344-345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정리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1. 자유주의는 공동체를 경시 또는 무시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있는 삶에 있어 대체불가능의 중요요소인 공동체를 손상시킨다.
2. 자유주의는 정치적 결합이 도구적인 가치만을 지닌다고 과소평가함으로써 정치적 공동체에의 참여가 인간의 가치있는 삶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
3. 자유주의는 개인적 제약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닌 가족에 대한 의무 및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관해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거나 혹은 그러한 설명과 양립할 수 없다.
4.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아가 선택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공동체적 삶과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5.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정의(正義)는 공동체의 유지에 있어서 교정적인 덕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윤리적 위기로 파악하는 문제의식 및 덕의 전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윤리적 대안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론적 윤리 (ecclesial ethics)라는 별명을 가진 하우어와스의 윤리에는 교회에 대한 강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ought I to do?)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what ought I to be)를 문제삼는 과정에서 교회를 공동체윤리의 터전으로 상정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의 책무는 교회되는 것이며,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에 기초한 교회공동체의 윤리적 관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우어와스에 따르면, 복음은 우리에게 존재의 방식을 부여하는 이야기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¹⁶⁾ 특별히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경향을 지닌 시민사회와 중요한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를 그리스도 신앙에 근거한 사회윤리적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구현하는 이야기 공동체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가치를 오랜 세월 실천적으로 공유해온 공동체이다.¹⁷⁾ 그리고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 속 하나님 이야기들과 자신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의 살아있는 전통으로 구성한다.¹⁸⁾ 하우어와스가 교회는 무언가 새로운 사회윤리를 제안하기보다 그 자체로 사회윤리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¹⁹⁾ 그에

16) Hauerwas, S., *Truthfulness and Tragedy* (Univ. of Notre Dame Press, 1977) p.73

17) Hauerwas, S.,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ke Univ. Press, 1988), p.102

18) Hauerwas, 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1981), p.96

19) Hauerwas, 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따르면, 교회는 자유주의적 사회공동체에 동화되어 그들에게 제시할 사회윤리의 이론과 틀을 소유했다기보다 교회 그 자체로 사회윤리이다.²⁰⁾ 한 마디로, 교회공동체 안에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독특한 삶의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종의 소종파적 퇴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아마도 하우어와스가 교회에게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고 말한 것은 아닐 터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윤리적 삶을 통하여 탁월한 삶의 방법, 즉 평화의 길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에 진정한 정치적 대안으로서 용서와 화해의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교회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근거하며,²¹⁾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시대에 비폭력이라는 방식으로 평화의 윤리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하우어와스의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 내심 미국의 교회들이 자유주의 정신에 동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기독교적 덕의 윤리야말로 자유주의 사회가 노정하는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왔음직하다. 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자유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공동체적 대안을 세우자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하우어와스의 듀크대학 동료이자 공동체주의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맥킨타이어와의 학문적 교류에서 나타난 윤리사상이 공동체주의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하우어와스가 기독교윤리를 신앙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볼 수

Notre Dame Press, 1983) p.99

20) op. cit.

21) Ibid. p.87

있게 하는 비전과 연관짓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에 따르면, 신앙인의 비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이야기이다. 복음의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²²⁾ 교회는 교인들이 성경 속 하나님의 이야기들에 충실하고 교회 밖의 세상에 도덕적 삶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따르고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기독교윤리를 만드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일이란 신앙인들이 덕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옳길 수 있을 것이다.²³⁾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의해 성숙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²⁴⁾ 이것은 교회가 미국식 자유주의에 동화되거나 예속되지 않는 탁월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자유와 비판의 권리를 앞세우는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 경향에서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여러 사회집단의 하나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고려없이 무연고적 자아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지니는 복음적 전통과 공동체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교회에 대한 이해 역시 계몽주의적 기획에서 말하는 윤리적 자유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다르없다.

그렇게 본다면,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안티들이 들러붙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자유주의 윤리학에서는 교회를 비롯한

22) Ibid. p.26

23) Ibid. p.201

24) Hauerwas, 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1981), p.12

모든 도덕행위의 주체들은 스스로를 자율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무제한적인 비판과 자율을 누리는 존재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아무리 사회문제에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현실에 참여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안티는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교회를 독특하고 탁월한 인격과 덕성함양의 공동체로 보고 대안적 삶의 모습을 구현하지는 하우어와 스티븐스 관점이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동체윤리와 인격윤리가 절대적인 선이라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토론하거나 검토하여 비판적 토론을 이끌려는 생각이 없다. 니버와 거스타프슨, 그리고 하우어와 스티븐스로 이어지는 이론적 흐름을 추적하여 학술적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소박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싶을 뿐이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더욱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를 복음에 기초한 은혜공동체로 파악하고 은혜의 윤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하우어와 스티븐스는 교회를 신앙공동체일 뿐 아니라, 신앙인의 덕성을 함양하는 윤리적 공동체로 설명하는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해 준 셈이다.

III. 부흥운동을 넘어 윤리목회로

교회로 교회되게 하자는 이야기는 하우어와 스티븐스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문제의식이요 신앙인의 윤리의식이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꿈꾸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부단한 자기갱신의 노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

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부흥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사실이다. 굳이 따지자면, ‘부흥’과 ‘부흥운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부흥을 꿈꾸는 대형집회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침체된 교회와 신앙인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인위적인 부흥운동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부흥운동이 과거회상적인 대형집회로 머물지 않고 바람직한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교회됨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교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들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하우어와스의 관점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눈부신 교회성장의 열매를 맺어온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교회윤리를 세워야 한다. 교회공동체를 위한 윤리,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윤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과연 어떤 윤리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교회를 위한 윤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세워져야 한다. 우리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은혜중심성에 있으며, 윤리적 대안을 주는 도덕공동체라는 주장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때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건전하고 의미있는 비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덕성함양의 터전으로서 교회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구나 폭로와 비판, 그리고 정죄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자칫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한 윤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특히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를 향하여 윤리를 외치는 것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부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²⁵⁾

25) 참고로, 한국교회의 은혜중심의 윤리를 세우기 위한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의 창립취지문을 소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를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공동체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윤리목회(ethical ministry)에서 그 가능성을 찾는다. 윤리목회라는 용어는 하나의 용용이며 제안이다. 목회자를 목회윤리(ministerial ethics)의 틀에 묶어두어 윤리적 부담감만 안겨줄 것이 아니라 목회현장의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들을 윤리적인 것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목회자로 하여금 자신과 교회공동체의 윤리적 책임을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윤리적 실천을 격려하자는 취지이다. 목회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가 윤리적인 실천의 하나라는 자긍심을 함양함으로써 그 책임의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윤리목회란 교회가 수행해야 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목회적 관점에서 실천하자는 것이다. 현대윤리학에서 '윤리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윤리주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을 교훈삼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윤리목회는 성숙한 목회윤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목회란 또 하나의 윤리적 이슈가 아니라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실천사항이다. 그 안에 사회통합적 관심과 사회복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주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우리는 교회를 덕스러운 신앙공동체로 세워가는 교회윤리운동을 통하여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고자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를 창립하고 복음에 입각한 은혜중심의 교회윤리 세우기에 헌신하고자 한다.”

- 우리는 사도적 신앙고백에 기초한 신앙공동체의 덕스러운 전통이 확립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중심의 교회윤리’를 연구하고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한국교회에 복음적인 은혜중심 윤리의식 성숙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동참할 것이다.
- 우리는 교회개혁의 ‘예언자적 기능’과 공동체적 품성을 강화하는 ‘덕성함양의 기능’을 겸비한 기독교윤리운동을 전개하며, 비난과 정죄에 치우치지 않고 은혜중심적 덕성함양을 핵심으로 하는 ‘교회를 위한 윤리’를 모색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동참할 것이다.
- 우리는 생명의료, 환경, 경제, 대중문화 등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방향제시 및 기독교적 생활윤리의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가 우리사회에 복음적인 윤리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동참할 것이다.

대한 헌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윤리의식을 겸비한 가진 목회를 통해 교회를 윤리적 공동체로 세우고 시민사회가 추종할 수 없는 성숙한 윤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교회윤리를 세우고 윤리목회를 구현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경영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기업과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리목회가 품질경영이나 고객감동을 말하는 기업윤리와 같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관 제도를 비롯한 기업경영상의 맥락과 교회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회는 은혜공동체요 윤리공동체라는 본질적 특성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은혜중심적 본질에 입각한 윤리목회와 은혜중심적 교회윤리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²⁶⁾

교회가 실천적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노력이다. 이를테면, 교세위주의 사고방식은 교회의 교회됨에 속하지 않는 일이다. 게다가 교세를 말하는 과정에 상당한 거품이 상존한다는 점 역시 문제라 하겠다. 수에 의존하여 교회를 말하는 것은 허위의식을 낳을 수 있

26) 윤리목회의 필요성은 필자의 소신이 아닌 듯싶다. 예를 들어 한기채 목사는 윤리목회를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감동목회’, ‘교회재정과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하여 교회 안팎의 신뢰를 얻는 목회’, ‘믿음의 생활화로 사회봉사와 구제에도 앞장서고, 정직한 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목회’, ‘교회의 거품을 제거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목회’라고 제안한다. 이 내용은 한기채, ‘교회여 영적 신뢰회복을’, 국민일보(2006.5.21)를 참고하여 필자가 이해한 것을 나름대로 요약, 재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재정과 행정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비롯한 민감한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회는 본질상 재정 및 행정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도 ‘교회연합사업과 윤리경영’, 한국기독교공보(2006.6.17)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함께 윤리목회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윤리경영의 요구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윤리목회와 연결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 은혜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물량주의적 관점에서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의 부흥을 염원하는 한국교회의 성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운동 이전에 교회 안에서 정직을 실천하는 회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가령, 개신교 인구가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종교인구조조사결과에 실망하여 그 신뢰성을 논하기 앞서 교회에서부터 통계상의 거품을 빼야 할 것이다. 굳이 통계를 말해야 한다면 출석교인 수를 기준으로 삼는 정직한 통계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본다.

어쨌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공동체에 윤리적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 비난과 정죄로 일관된 안티적 세태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목회자와 신앙인을 격려하는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말하자면, 한국사회의 희망을 말하기 이전에 한국교회의 희망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망과 비전을 가진 교회와 윤리의식을 겸비한 목회가 세워질 때, 한국교회가 그동안 보이지 않게 헌신해온 사회의 사각지대를 향한 봉사과 노력이 더욱 의미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서 한국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이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란다.

IV. 나오는 말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와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신교인구가 감소한다는 위기의식 속에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른바 ‘부흥운동’의 열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일(let the church be the church)은 미를

수 없는 긴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교회를 탁월한 윤리공동체로 인식하는 데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말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교회는 비전을 주어야 한다. 먼저 교회에 희망적 비전을 주어야 한다. 안티적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에 희망적 대안을 주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고 복음적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지는 것이다. 또한 복음이 지적수용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윤리적 성숙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셈이다.

교회는 또한 사회에 비전을 주어야 한다. 사회통합이 핫이슈로 떠오른 우리시대에 교회는 사회의 사각지대를 품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정책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 무연고적 자아의 무제한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 배려 이상의 공동체적 돌봄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한 출발점이 마련되고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Hauerwas, 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1983).
- Hauerwas, 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1981).
- Hauerwas, S.,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ke Univ. Press, 1988).
- Hauerwas, S., *Truthfulness and Tragedy* (Univ. of Notre Dame Press, 1977).
- Augustinus, 성염 역, 『신국론』, 분도출판사, 2004.
- 유지황,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사상이해』, 땅에 쓰신 글씨, 2005.
- 임성빈, 『21세기 책임윤리의 모색』,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 문시영, “교회연합사업과 윤리경영”, 한국기독교공보, 2006.6.17.
- 한기채, “교회여 영적 신뢰회복을”, 국민일보, 2006.5.21.
- 손봉호, “도덕성 결여가 교회성장을 막는다”, <http://cafe.naver.com/maral/1>.
- 교회성장연구소, “목회자의 윤리와 교회성장”, 『교회성장 가이드』(교회성장연구소 1993.10).

K C I